

남원시, 문화예술사업 추진 박차

기획공연·문화행사·남원미술에듀센터·복합형공공도서관 등에 사업비 193억원 편성 추진

남원시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공연, 문화예술단체 각종행사, 문화시설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남원미술에듀센터와 복합형 공공도서관,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의 문화기반 구축사업 등에 사업비 약 193억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기획공연으로 상반기 ▲남원시립국악단 비대면 유튜브 공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열녀춘향 수절가' 등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악 한국을 빛내는 목소리, The Best Voice

▲뮤지컬 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3DIVA 콘서트 ▲발레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춘향미술대전, 춘향사진대전, 춘향전국 무용경연대회 등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와 남원문화대학, 인문학 강의, 남원문화원사업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도서관, 명창의여정, 국악연수원 등에서는 ▲기획전시 ▲청소년 진로아트캠프 ▲비대면 미술관 집콕놀이 ▲책

값돌려주기, 책배달, 북아트 체험 ▲국악교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박승룡 문화예술과장은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남원미술에듀센터, 복합형공공도서관,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체육계 5개 공공기관, 청렴윤리·인권보호 공동실천 협력

태권도진흥재단-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체육산업개발, 협약 체결

체육계 5개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김사엽)은 29일 체육계 청렴윤리·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개 체육계 공공기관의 실무직원들로 구성된 '체육계 혁신협의체'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협약을 맺고 각 기관 임직원이 동참하는 체육계 청렴·인권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체육계 5개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김사엽)은 29일 체육계 청렴윤리·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실천 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은 '청렴·인권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시 상호 협력'을 비롯해 '청렴·인권 정책 우수사례 공유', '체육계 청렴·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검토 및 환경 조성 공동 노력', '각종 캠페인, 교육, 연구조사, 포럼, 청렴 콘서트 등의 청렴·인권행사 공동 추진' 등 체육계 청렴윤리와 인권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5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체육계의 인권 보호와 확립에 더욱 기여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청렴과 윤리를 기반으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월부터 5개 기관의 혁신담당자를 중심으로 20여 명이 모여 혁신 아이디어 및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인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

고 'With Sports, Without COVID-19'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응원 영상을 기관별로 제작하여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거꾸로방학' 운영단체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 간 예술분야 창의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인

'거꾸로방학'은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창의성·감수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선정된 창의캠프 운영 단체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문화예술을 소재로 창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기관이나 시설 및 단체다. 4개 단체를 선정해 1,500만원~2,500만원 이내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 시스템(www.jbctedu.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경례 교수-공중 귀주머니(자수)



박순자 교수-원삼(침선)

전주공예품전시관, 특별기획전 '복식'

7월 4일까지 한국공예장인학교 교육 수료생 결과물 20여점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특별기획전 '복식'을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

특별기획전 '복식'은 2020 한국공예장인학교 전통섬유 분야 수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 전시며, 수업을 담당한 김선자, 박순자, 전경례 교수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 타이틀 '복식'은 옷과 장신구를 뜻하는 말로 공예기술인 침선, 매듭, 자수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 ▲원삼(침선) ▲낙지발 삼작노리개(매듭) ▲공중 귀주머니(자수)를 포함한다.

작년 한국공예장인학교 수업을 통해 공예기법을 전수받은 교육생 송진아, 이다기, 이은주, 이재화, 이현미는 수업에서 배운 표현기법에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작품을 제작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복인 원삼은 가로 길이만 4M로 전시관 한 면을 가득 매워 진풍경을 선사하며, 노리개와 귀주머니는 형

형색색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제작돼 다채로운 미감을 전한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은 규모가 커 한공간에 작품을 담기 부족했다. 전시 기획자는 교육생의 작품이 대중에게 첫선을 보이는 만큼 전시 1관과 2관 공간을 모두 활용해 작품 하나하나가 오롯이 보일 수 있도록 했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장인학교를 통해 전통기술이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전시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통섬유 공예기법의 정수를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는 '복식' 기획전은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관람 할 수 있다. 온라인 관람은 유튜브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복식'을 검색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JB문화공간, 남상일 국악 토크콘서트 호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28일 국악인 남상일의 국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국악토크콘서트는 최근 활발한 대중문화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국악인 남상일이 무대에 올라 재치 넘치는 입담과 시원한 소리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공연에서는 민요연곡, 한 오백년, 단가 사설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등의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교감하며 맛깔난 흥 자리를 풀어 냈다. 특히 본인의 국악인생과 고향인 전주에 대한 추억들을 재미난 입담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은 "남상일씨의 입담과 소리,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이었다"며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준 전북은행과 JB문화공간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JB문화공간은 오는 7월에는 임경숙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건강밥상' 특강과 앙드레 전의 탱고 in Summer Night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클래식 재즈 음악 감상', '홍차마스터클래스', JB영화감상, JB클래식산책 등 정기적인 문화 강좌도 함께 운영 중이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과 대관 신청은 JB문화공간 홈페이지(www.jbcenter.or.kr) 및 담당자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8-7797)로 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